

안전성 ↑ 인건비 ↓... 프랜차이즈, 24시 무인시스템 확산

대면 최소화 '키오스크시스템' 인기 수도권 이어 대전·광주·춘천 등 20여개 무인카페 브랜드 생겨나

베모스, 무인카페 'AWTA' 론칭 고정비용 줄여 커피값 절반수준 내년초까지 10여개 가맹점 개업



남양주 별내에 위치한 무인카페 AWTA.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문제가 커지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무인 키오스크를 활용한 매장을 만들고 있다. /조효정 기자

#회식을 마친 밤 11시. 문 열린 카페가 보이지 않아 터덜터덜 걸다가 남양주 별내역 인근 'AWTA(A WAY TO ALICE)' 카페에 들어섰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 무색하게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직원이 없다. 'AWTA'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카페다. 화면을 통해 카드로 음료를 주문하자, 10초도 되지 않아 손익간에 얼음 섞은 음료를 컵에 담아 내놨다. 테이크아웃 하고 가려다가 추운 날씨에 이내 폭신한 의자에 앉아 음료를 즐겼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이후 자영업자들은 종업

원의 인건비를 줄이거나 '무인 운영시스템'을 장착하는가 하면, 24시간 운영으로 매출 안정성을 꾀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면서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해 코로나감염 예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원치 않는 M

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아직은 일부 중년·노년층의 경우 직원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씨 크기를 확대하거나 이용법을 쉽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드 및 개인소지품 분실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

별써 국내 20여 개 정도의 무인카페

브랜드가 생겨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뿐 아니라 대전, 광주, 춘천 등의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밴딩머신 사업규모는 미국이 47조원, 일본 53조원, 중국이 2조 5천억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카페디아모를 17년 동안 운영해 온 베모스가 최근 론칭한 'AWTA(A WAY TO ALICE)' 역시 최근 생긴 무인카페 중 하나다. 지난 8월 남양주시 별내에 직영점을 오픈했고, 내년 초까지 강릉, 건대, 경주, 부산 등에 10여 개의 가맹점을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

'AWTA'에는 베모스가 개발한 무인커피 밴딩머신과 디저트&스낵머신이 24시간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매장은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점주가 집에서도 원격관리가 가능하다. 메뉴의 종류도 16가지 이상이다. 디저트&스낵머신에는 케익, 마카롱, 샌드위치 등 커피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낵이 판매된다. 100% 카드 결제시스템으로 분실

이나 파손의 위험요소도 없다. 무인시스템은 고정비용을 줄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가격인 1800~3500원 선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지난 4월 직영점을 첫선을 보인 무인매장 '홍루이젠 PICK'은 상주 직원 없이 24시간 100%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로, 소비자가 셀프 키오스크에서 직접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홍루이젠 PICK'은 6개월 만에 70여 개의 매장을 연이어 오픈 하였으며, 향후 30여 개 매장의 추가 오픈까지 확정되어 있다. 스타디 카페 '디플레이스'도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IoT 기술로 매장을 관리한다.

김동현 창업 컨설턴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자영업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견디며 버티고 있다"며 "무인매장의 확산과 인기 상승은 한국 창업지도를 단번에 바꿀 임팩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文 대통령, 아세안 관련 5개 정상회의 참석

내일부터 나흘간 화상으로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15일까지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5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가운데 오는 15일 열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식을 개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12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13일), 아세안+3 정상회의(14일), 동아시아 정상회의(14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15일) 등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앞으로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힐 예정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RCEP)에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호주·뉴질랜드 등 모두 15개 국가가 참여해 세계 인구 1/3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는 만큼 포괄적인 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셈이다. /최영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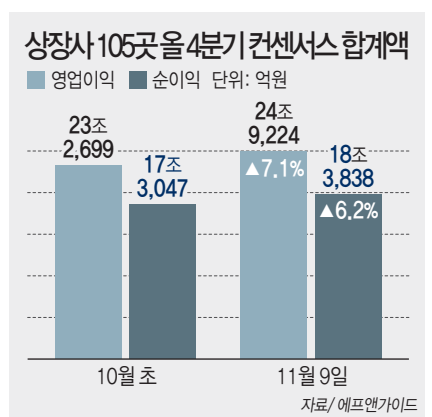
상장사 성적 '굿'... 4분기 '깜짝실적' 기대

3분기 251개사 영업익 26.5% ↑ 수출개선에 4분기 60% 증가 기대

상당수 상장사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4분기 실적주가 연말 증시를 좌우할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에 따른 단기 변동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개별 기업과 경제 등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4분기에 상장사의 실적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 105곳의 올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컨센서스) 집계액은 24조9224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보다 58.3%가 증가한 수치다.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주요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눈에 띄고 있다. 전 거래일까지 총 251개 기업이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이들의 영업이익은 총 32조5864억원으로, 작년 3분기(25조7586억원)보다 2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53개사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10% 넘게 웃도는 성과를 냈다.

높은 제조업 비중과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상장사의 실적과 향후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3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avin@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파주장단콩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

장단콩
생백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장단콩축제공추진위원회
NH농협 파주시지부

문의 031)940-5281~3

2020. 11. 27~29

장소 ▶ 임진강역 앞 임시주차장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253-7 → 맞은편)